박사학위 취득자 프로필

제34회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10개 분야에 걸쳐 총 3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문학박사 5명, 법학박사 2명, 행정학박사 1명, 경영학박사 2명, 이학박사 7명, 의학박사 13명, 치의학박사 5명, 한의학박사 7명, 약학박사 3명, 공학박사 4명등이다.

범례
①생년월일
②본 적
③경 력
④학위 논문

□문학박사□

▲김창진
①1932. 1. 25 ②부산 ③성심여대 교수 ④개화기 문학의 문체론적 연구

▲지춘수
①1929. 1. 4 ②서울 ③조선대 조교수 ④국어교육과 연구

▲안진수
①1942. 3. 13 ②서울 ③단국대 조교수 ④Thomas Hardy's Naturalism in its Humanistic implications

▲정순희
①1935. 1. 27 ②서울 ③삼육대 조교수 ④An X-syntactic Analysis of Noun Phrases in English and Korean

▲이호영
①1942. 1. 23 ②서울 ③단국대 부교수 ④신라 삼국통합과정 연구

□법학박사□

▲조종식
①1929. 10. 4 ②충북 ③상지대 도서관장 ④한국 묘지의 법적 연구

▲최선호
①1948. 1. 1 ②충북 ③대전대 강사 ④공법과신분 연구

□행정학 박사□

▲이준방
①1944. 10. 19 ②서울 ③상명학원 상임이사 ④한국행정 윤리 실태와 확보전략연구

□경영학 박사□

▲민경환
①1929. 6. 18 ②서울 ③단국대 부교수 ④자본 자산가격결정모형과 재정가격결정이론 연구

▲김인묵
①1934. 2. 19 ②경기 ③세종대 기획처장 ④경영 정보시스템의 발전과 모형설계 연구

□이학박사□

▲주용규
①1954. 10. 14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한타바이러스속 중 집쥐속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실험용 흰쥐에서 전파 경로

▲김상훈
①1930. 3. 5 ②서울 ③경희호전 교수 ④한국 온천 관광지 형성과정과 기능 연구

▲이광배
①1955. 8. 18 ②서울 ③서일공전 강사 ④비정질 AS_2Se_3 박막에 첨가된 은이 교류전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안숙자
①1946. 11. 16 ②전남 ③중앙대 조교수 ④침채류 발효에 미치는 식품보존료 영향

▲권태봉
①1954. 12. 17 ②충북 ③경희대 조교 ④대두유에 대한 토코페롤과 인지질의 항산화적 상승작용

▲최준철
①1942. 1. 26 ②서울 ③한국과학기술원 ④Phenylviny sulfone 유도체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과 그 Benxonethiol 첨가물의 합성 연구

▲이남식
①1936. 9. 26 ②대구 ③계명대 재무처장 ④ A Study Concering Certain Product Spaces.

□의학박사□

▲채수곤
①1946. 4. 24 ②전북 ③경희대 대학원 ④Aflatoxin 중독에 의한 백서 결장점막 형태학적 변화 연구

▲최진주
①1940. 5. 1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한국인의 뇌혈류 정상치 연구

▲홍성언
①1950. 8. 11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방사선 조사와 Adriamycin병용투여가 마우스 소장에 미치는 영향

▲허주엽
①1948. 3. 12 ②경기 ③경희대 대학원 ④영아기 청성 뇌간반응의 발달적 변화 연구

▲방익수
①1954. 1. 24 ②경기 ③경희대 대학원 ④십이지장궤양 환자에서 위유문부 Gastrian 및 Somatostain 분비세포의 변동 연구

▲배영재
①1951. 1. 11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인체포피 Langerhans 세포 농축수확법과 자가 및 동종임파구에 미치는 영향

▲이주희
①1954. 2. 19 ②서울 ②경희대 대학원 ④Aflatoxin 중독에 의한 백서 결장점막 형태학적 변화 연구

▲신환호
①1935. 1. 15 ②서울 ③순천향대 교수 ④광화학 공기공해 누액의 PH 치변동 연구

▲김진우
①1947. 12. 22 ②충남 ③경희의료원 ④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서 적혈구를 이용한 인슐린 분해효소 활성도 연구

▲서정승
①1944. 9. 25 ②부산 ③인제의대 부교수 ④급성일산화탄소 중독이 간장당원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

▲홍진기
①1952. 10. 30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배란유도주기의 배란임계시기에 초음파적 난포변화와 황체화 호르몬치에 의한 배란시기 예측

□치의학 박사□

▲홍대기
①1952. 11. 23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음식물이 치근열 구액의 소수이온 농도에 미치는 영향

▲박준봉
①1954. 10. 15 ②경북 ③경북대 강사 ④Bioceramic제제의 성견치조골 결손회복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고광현
①1949. 3. 7 ②서울 ③경희대 대학원 ④설암유발의측 진효과 실험적 연구

▲유선열
①1951. 12. 20 ②전남 ③전남대 조교수 ④하악골 전단술후 골유합 과정 실험적 연구

▲전시진
①1956. 3. 10 ②대구 ③경희대 대학원 ④아동의 수완골과 치아및 신체발육 비교연구

□한의학 박사□

▲김재규
①1954. 4. 3 ②경북 ③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조교수 ④Ethanol 중독에 대한 침구 및 인산수침이 해독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철
①1955. 9. 15 ②부산 ③경희대 대학원 ④복형이 가로의 혈압및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병우
①1950. 11. 14 ②서울 ③경희의료원 한방병원강사 ④소갈증 처방인 천화산, 팔선장수환및 옥천환이 생쥐 혈당량에 미치는 영향

▲김길수
①1952. 7. 5 ②서울③경희대 대학원④가감청심탕 효능의실험적 연구

▲변정환
①1932. 7. 22 ②대구 ③대구한의대이사장④옥륜 개영환과 조경량혈원이 자성 Rat의호르몬및 Cotecholamine 함량에미치는 영향

▲진송근
①1951. 7. 27 ②경남 ③경희대 대학원 ④Ethanol투여백서의 간기능에 미치는 소조증탕의효과

▲김영준
①1947. 2. 28 ②서울 ③경희대대학원④수점산이 위궤양및 진통에 미치는영향

□약학박사□

▲하광원
①1944. 4. 19 ②경남 ③경희대 대학원 ④HPLC에 의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계 중 B-enzo(a)Pyrene의 분리정량

▲송보완
①1956. 12. 1 ②서울 ③경희의료원 ④냉초의 성분및 약리작용 연구

▲윤형중
①1938. 11. 2 ②충남 ③한일약품 ④염산 Diltiazem의 Microcapsule에 관한 약제학적 연구

□공학박사□

▲이종문
①1944. 10. 11 ②전북 ③전북대 부교수 ④수치해석법에 의한 Munsell색체공간의 해석

▲안경조
①1937. 7. 2 ②경북 ③한국의류학회 편집이사 ④견직물의 아크릴아미드에 의한 음이온그라프트 중합연구

▲이충구
①1945. 12. 11 ②충북 ③충북대 부교수 ④다층다공필모체내의 류체유동특성 연구

▲김원규
①1941. 1. 26 ②서울 ②국방과학연구소 ④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터보제트 엔진의 연료제어시스템 설계및 응용 연구

慶熙는 다시 飛翔 하는가

80년 학원사태 이후 신입생들에게 있어 경희 선명도가 약해지다가 최근 2년동안 경희의 재도약을 기약할 만큼 호전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11점이 높아짐으로써 그 가능성을 예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전 경희인이 일심하여 거둔 성과라는 데에 있다. 그래서 본란에서는 이번 입시를 상세히 검토해 그 특징과 의미를 되새기고 아울러 그 개선점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의 말>

—본교 신입생 입학성적을 분석한다

우수학생 유치와 함께 면학분위기도 더욱 성숙돼야
진달래꽃 등 논술고사 문제는 최고수준 평을 듣기도
전·후기분할모집, 작년비해 평균11점 상승

Ⅰ. 객관성

객관적으로 볼때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이 한 학교의 수준을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커트라인으로 각 대학의 등급을 숙명론적으로 결정짓고 그 등급에 따라 한 인간의 자질마저도 결정해 버리는 현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와 통념적사고방식들은 일면 재고되어야한다. 그럴에도 현재의 입시풍토는 그러한 통념적 요소들을 더한층 강화시켜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해서 입시성적이 전적으로 무시되어야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록 유일무이한 조건은 아닐지라도 한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가 입시성적이라는것 또한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학교에서 우수신입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입시결과에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도 그러한 맥락속에서 찾을수 있을것이다. 더우기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논술고사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본교의 경우로만 한정해보더라도 전후기 분할모집을 첫 실시하는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신입생을 선발해야한다는 목적론적 차원에서 입시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작업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86학년도 입시결과를 비교가능한 부분들안에서 간략하게 분석 평가해 보고자한다.

Ⅱ. 결과 분석

어떠한 결과를 놓고 이를 분석·평가하자면 그 결과에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년과 비교해서 본교의 86학년도 입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후기 분할모집, 논술고사의 첫시행,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우수신입생 유치사업 등 이므로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상적인 측면을 볼 때 본교는 86학년도 입시전형에있어 전기에 4.8대1이라는 전국 종합대학 가운데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후기에도 2.4대1의 높은경쟁률을 나타냈다.

각 학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간호학과가 23.6대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섬유공학과 20.6대1, 의상학과 19.8대1, 가정관리학과 12.8대1의 순이며 의상학과와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대폭 지원하는 유례없는 현상도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경쟁률 속에서 나타난 입시성적은 과연 어떠할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높은 경쟁률이 반드시 높은 커트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쟁률과 성적 양자사이에 절대적인 함수관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에 앞서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후기 분할모집자체가 올해 입시의 성격을 가장 크게 규정짓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시행 목적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 질것이다. 즉 분할모집의 시행 목적에는 후기에도 대학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교육적차원의 배려도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키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85학년도 입시상황과 결과를 보면 잘 나타난다.

85학년도에는 전형 결과 자연계열 학과등에 많은 미달사태가 발생했으며(눈치작전등을 감안한 실질적 미달과를 포함하여) 그 결과 커트라인도 많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들 사이에도 커다란 실력차가 존재 일부 학과에서는 수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할모집안이 선택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속에 실시된 전후기 분할모집의 결과 85년과 비교해서 합격자 학력고사 평균성적이 전·후기 총괄 (예체능계 제외한 58개 학과) 서울캠퍼스는 9.2점, 수원캠퍼스는 14점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분할모집 학과와 비분할모집 학과로 구분해서 보면 분할모집의 경우 서울 캠퍼스 19점, 수원캠퍼스 20.5점이 상승했으며 비분할모집(문리대 정경대, 영교과, 간호학과)의 경우 평균 7.5점 상승했다.

또한 예체능계를 제외한 단과대별 85년도比 평균점의 변동을보면 다음과같다.

▲문리대 : +10.8▲법대 : 전기 −1.5, 후기 +14 ▲정경대 : +0.78▲사대 : −2 ▲의대 : 간호과 +39, 의예과 전기 +5, 후기 +12▲한의대 : 전기+25, 후기 +26▲치대 : 전기 +4, 후기+9▲약대 : 전기 +37, 후기 +38▲외국어대 : 전기 +1, 후기 +13.4▲사회대 : 전기 −3, 후기+12▲자연대 : 전기+9.5, 후기+18▲공대 : 전기 +12.8, 후기 +25▲산대 : 전기 +9.8, 후기 +21.4

위와같은 86학년도 입시 학력고사 평균점 분석에 의하면 인문계열은 성적이 비교적 소폭 상승한 반면 자연계열은 대폭적인 상승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학교측 분석에 따르면 인문계열의 경우 올해 전체학력고사 성적이 평균 3~4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자연계열에 있어서도 작년 입시성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측의 평가가 타당한지 각 학과의 85년도 대비 학력고사 성적 최고점과 최저점(커트라인) 을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자.

먼저 최고점의 경우 상승한 학과는 예체능계를 제외한 전체 58개 학과중 42개학과(서울캠퍼스 17개, 수원캠퍼스 25개)이며 최고점이 동일한 학과는 경영·경제(야)·치의예·일문과 등 4개 학과, 학락학과는 12개 학과(서울캠퍼스 9개, 수원캠퍼스 3개) 이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승학과의 경우 영문과, 국윤과, 정외과, 회계과, 외국어대 영문과, 서반아어과, 사회대 행정학과·경영학과등 대부분 인문계열학과는 10점 이하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법학과와 법대 행정학과, 불문과만이 22점에서 24점의 높은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자연계열의 경우 물리과, 화학과, 지리과, 수학과, 간호과, 한의예과, 약학과, 농학과 만이 10점 이하의 상승을나타냈고 상승한 29개 자연계열 학과중 21개 학과는 평균 27.5점의 높은 상승을 보여준다. 특히 임학과, 자연대 물리과·화학과, 기계과, 식공과 등은 40점이상, 건축과, 토목과, 자연대 수학과, 산업과 등은 30점 이상의급격한 최고점 상승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고점 하락학과의 경우 평균점에서 5.75점 하락했으며 계열별로 보면 국문과, 사학과, 가관과, 신방과, 경제과, 중문과등 인문계열은 6.2점, 의상과, 우주과 등 자연계열은 평균 3.5점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를 정리하면 최고점에 있어서는 자연계열이 상승점수 폭이나 상승학과 수에 있어 인문계열 보다 월등히 앞서며 하락에 있어서는 점수폭이나 학과수가 적다.

다음으로 최저점(커트라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저점이 상승한 학과는 총 41개학과(서울캠퍼스 14개, 수원캠퍼스 27개) 이며 동일한 학과는 국문과, 국윤과, 회계과, 사회대, 경영과등 4개 학과·하락학과는 총 9개학과 (서울캠퍼스 8개, 수원캠퍼스 1개) 이다.

이를 최고점에서와 같이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승학과의 평균 상승점수는 22.6점이며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이 10개 학과에 평균 12.7점, 자연계열이 31개 학과에 평균 27.3점 상승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외국어대 영문과·불문과·중문과·일문과·서반아어과, 사회대 행정학과·무역과·회계과는 8점이하의 상승을 나타낸 반면 사학과와 가정관리학과만이 각각 46점과 34점의 상승을 나타냈다.

자연계열은 물리과, 화학과, 생물과, 자연대 수학과·물리과, 우주과, 기계과, 전자과, 건축과, 원자력과, 식품과등 11개학과만이 8점 이하의 상승을 보인 반면 나머지 21개 학과는 평균 39.2점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간호학과와 한의학과의 경우 80점 이상, 약학과는 70점 이상, 의상학과와 식영과는 60점 이상 상승했다.

최저점 하락 학과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 5.6점 하락했으며 인문계열이 총 8개 학과에 평균 6점, 자연계열이 1개 학과에 3점씩 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하락학과에 있어서도 정외과와 유전학과등은 평균점이 각각 11점과 3점씩 상승했으며 영문과, 신방과, 경제과, 경영과, 무역과(주·야) 영교과는 평균 2.7점 하락했다.

최저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정리해 보면 상승학과에 있어서는 점수 폭이나 학과수에 있어서 최고점에서 처럼 자연계열이 월등하고 하락학과에 있어서도 최고점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와 학교측의 평가를 비교해보면 학교측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된다. 다시말하면 최고점의 분석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점인 커트라인을 놓고 볼때 인문계열의 경우 총26개학과중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경영학과 야간은 자료에서 누락) 10개학과가 평균 12.7점 상승했으며 4개학과가 동점이고 8개학과가 평균 6점 하락했다고는 하나 평균점에서는 -1점하락하여 학력고사 성적이 전체적으로 인문계열에서 3~4점 감소한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저조하지 않았던 작년 수준보다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계열의 경우에있어서도 작년에 저조했던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총 32개 학과중 31개학과가 평균 27.3점 상승했으며 유전과만이 3점 하락했으나 평균점에서는 3점 상승해 평년수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와같은 수치들이 작년과 비교한 상대적 수치인 만큼 우리학교의 수준이 그 수치만큼 절대적으로 높아졌고 다른 모든 대학에 비하여 절대우위에 선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입시의 전반적인 진행이 교육적 원칙을 준수하며 차분히 진행된 점등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참고로 최고·최저점 분석에 따른 서울·수원캠퍼스별 85년도 비교치는 다음과 같다. (수치는 평균치 임)

◇최고점 상승 학과▲서울 9.5점▲수원 24.9점 ◇최고점 하락▲서울 6점▲수원 5점◇최저점 상승 ▲서울 41점 ▲수원 14.7점 ◇최저점 하락▲서울 6점 ▲수원 3점

또한 올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학과이면 대체로 커트라인도 많이 상승했다는 점도 밝혀둔다.

한편 올해 입시전형 결과 본교의 3백점이상 입학자는 6명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에게는교육적 차원에서 등록금전액면제의 장학혜택외에 책값과 생활비보조 명목의 지출은 일절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학입시의 또다른특징중의 하나는 논술고사의 첫 시행이다. 논술고사는 극심한 눈치작전의 폐단을 줄이고 신입생선발에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것이나 아직은 그반영도도 낮을 뿐아니라 채점에 있어서의 공정성확보등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박정훈 교무처장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나 대학측으로서도 논술고사를 신입생 선발의 자율권 확보과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논술고사의 채점은 공정했으며 그 반영율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입시에서 본교가 출제한 문제는 전통빈요 「아리랑」과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각각 한 귀절씩을 예시하고 두작품에 표현된 이별의 감정을 비교해 논술하라(전기 인문계) 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실과 대책」(전기 자연계) 우리나라 속담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는 설이있다. 두가지 입장을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과 초지를 전개하라 (후기 인문계) 청소년 과학화 운동의 사업실적 예를 보고 청소년 과학화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술하라 (후기 자연계) 등 4문제이며 심사에서는 문장력, 주제파악과 내용의 풍부성, 논리전개의 적절성들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채점교수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논술고사의 답안들이 대체적으로 천편일률식으로 자료나열에 그치었으며 비판력 부족, 자료분석 능력의 부족이 두드러졌다.

출제된 문제들은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접할수 있는 소재들이었으나 전기 인문계 문제는 한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유인즉 그 문제가 과거 S대 박사과정 입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비슷하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출제의원 C교수는 「아리랑」과 「진달래 꽃」은 상식적 차원의 재료이며 또 고교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배웠으므로 보편성에 어긋나지 않았고 박사과정 수준의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 쓸수 있는 답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안작성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된 그 문제는 지난 1월18일자 「코리아헤럴드」칼럼에서 올해 출제된 논술고사 문제중 가장합리적이었다는 평을 듣기도.

전형이 끝난뒤 박교무처장은 이번 입시의 미비점으로 홍보미비등을 들기로 했는데 홍보면에있어 올해 가장큰공헌(?)을한것은 재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교방문과 학과대표자들의 수험생 상담이었다.

재학생들의 손으로 우수신입생을 유치하자는 목적아래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학회연합회와 김재용 정경대 학생회장에의해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었다. 이들은 신청자들을 접수하여 전국 3백9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으며 원서접수기간중 3일동안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상담을 가졌다.

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할 시에는 학교측에서 교통비를 부담했는데 이러한 학교와 학생들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남은 과제

지금까지 86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올해에도 극심한 눈치작전이 판을 치고 대학의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내적으로 볼 때에도 자칫 발생할지도 모를 전기 입학생과 후기 입학생과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경희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수한 학생들만 데려다가 놓는다고 해서 그 학교의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만큼 학교측에서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교수 충원, 실험실등의 기본적 학습조건을 더욱 충실하게 가꾸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해결점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후기 분할모집에 있어서는 실시 첫해에 그 성과를 가름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미비점들을 성실히 보완해야한다. 1차적으로 전후기 분할모집에 따른 비율등은 현재의 전기 70%, 후기 30% 수준이 적당하다는 평가이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취재부>

歲時鋒

「작은 것」이 가진 「큰」 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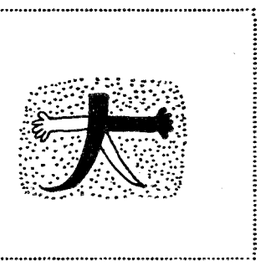
요즘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 한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라는 4차원의 세계를 설정하기 이전까지 우리 인간들은 3차원의 세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4차원의 세계,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공존하는 세계, 생각해 보면 신비롭기도 한 세계이다. SF소설이나 공상과학영화에서도 4차원의 세계에 대한 흥미를 끌게한다. 더우기 현대의 불가사의중의 하나에 속하는 버뮤다삼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용 잡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그러나 현재는 3차원의 세계이다. 3차원의 세계라하면 공간이 있는 세계이다. 즉, 개미가 걸어가는 길과 같은 모습의 직선이 1차원, X축과 Y축을 가진 세계가 2차원, 2차원에 Z축을 추가시킨 세계가 3차원의 세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크기가 있으며 이 우주안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큰 것, 작은 것, 모난 것, 둥근것등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사물이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크기와 형태에 관계없이 각자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큰 것만이 잘났다고 더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요, 반질반질하고 둥글며 반짝인다고 하여 잘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것은 큰 것 못지않은 자연계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큰 것」만 좋아하는 풍조가 있는 듯하다. 맞선보는 자리에 앉은 여자는 「큰 남자」를원하고, 과자도 「큰 개 좋다」는 식이다. 그 뿐인가, 물건을 사도 「큰 나라」제품이요



잔치상을 받아도 떡 벌어진 「큰 상」을원하지 않는가 말이다.

하기야 「큰 것」이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작은 고추가 맵다」는옛말이 있듯이 작은 것도 어딘가 당찬 일면이 있을 것이다. 큰 고추는 상대도 안될 매운 맛 말이다. 그리고 「큰 것」은 배은망덕하기가 벼룩의 낮짝만큼도없다. 이유인 즉,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이 크게 보인다는 것을 망각한 때문이다. 세상이 모두 성냥곽과 같은 크기라면 「큰 것」이 어디 있고 「작은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조선시대 법도대로라면 곤장을 맞을 일이다.

특히나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작은 일」은 「작은 일」로 그치는것이 아니다. 가난하고 혈벗는 소소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큰 일」이고 다소간에 논쟁이 있다고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탁자에 둘러 앉아 대화를 하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큰 일」이다.

혹자는 도대체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크다」거나 「작다」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준에 얽매이지는 말자. 단순히 「큰 것」은 「큰 것」이고 「작은 것」은 「작은 것」이라 생각하자. 그렇다고 무관심하자는 것은 아니다. 「큰 일」 「작은 일」가리지 말고, 모두의 소중함을 알고 신중히 대하자는 것이다.

골목골목마다 모여서 노는 아이들이나 흔들의자에 앉아 오수를 즐기는 큰 어른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사욕 없고, 순진하기만 한 어린애들에게서 배울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조차 이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없다. 현대는 3차원중에도 불확실성의 시대니까.